



정말 한의사 맞나요? 한의사 같지 않네. 항상 외삼(?)을 받는 한의사가 있다. 지하철 1호선 석계역 근처 백산한의원 이민영 원장은 수려한 외모와 세련된 행동 때문에 늘상 기막 한의사로 오해받는다. 여기에 복싱 국제심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한의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엄연히 한의사이다. 척추관절과 보약클리닉의 전문가이다.

그의 이력서에 별다른 이력사항이 적혀 있다. WBA의무분과위원, 복싱 국제공인심판, 한국스포츠한의학회장 등 스포츠 그것도 복싱과 관련된 부분이 눈에 띈다. 그는 국제유일, 아니 세계유일의 한의사 복싱국제심판이다. 한의사라는 일 하나하가도 힘든 세상에 두 가지 일을 정열적으로 하는 이민영 원장을 만나 그의 두 가지 삶에 관해 들었다.

“어린 시절 재의 놀이하는 중흥체육관이었습니다. 복싱광인 아버지는 시간이 있는 날이면 경기장을 찾았는데,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지요.” 아버지가 이왕이면 자연스럽게 복싱에 익숙해지게 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테니스를 좋아했고, 고교생이 좋아하는 유도도 수업을 통해서도 교재로 가지고 있다. 그런들 운동을 좋아했고 활동적인 성격이기도 했다.

중흥체육관을 놀이터 삼아 다진 복싱열정

이 운동이 복싱계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 그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74년 여름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날이었다. 그것은 중수원이 아꼈던 내일배와 시합을 하는 날이었고 내일배에서 어린 6살짜리 공개를 하고 있었다. 비스를 비교 거리가 공개연습을 공개 있었는데, 그때 그 우연한 계기, 나 놀이하게 만났던 날이 나온다. 아버지가와 할아버지 공개는 이전에 보았던 공개를 갖고 있던 그때에는 관중과 함께의 관중이다. 그는 작은 관중일 그 일가에 바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르 한 번해보자” 하는 욕심이 생겼고, 대하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는 대하에 입학해서 바로 학교안 헬스클럽에 등록해

몸을 다지기 시작했다. 당시 헬스클럽이 샌드백이 하나 걸려있었는데, 그걸 차기 시작했다. 운동계도 아이같이 복싱인 수가 그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어 그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배울 수 있었고, 간혹 그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때문에 공적으로도 용기에 정당한 “노르”였었다.

80년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84년에 안악이를 개업했다. 잠시 복싱에 관한 생각을 접어두고 일어난 1년하고 있던 무언 9년도에 안악일 앞 사거리에 복싱광하는 체육관이 들어섰다. 이는 그의 복싱열정과 다시 안악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곧바로 체육관이 문을 열었다. 7년 후 당시 그 도장의 관장은 김문호 대표에게서 99만원에 김대일대표 김문호, 전 WBC 챔피언 겸 카이인정일 대표가



한의사와 복싱국제심판, 두가지 삶을 사는 이민영 원장